[2019년, 25회 합격] 법무사단기 박*운 법무사님

1 차 시험 점수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법	민집법, 상업등기법	부등법, 공탁법
	84점(16개/26개)	76점(33개/5개)	54점(25개/2개)	80점(25개/15개)
2 차 시험 점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소법, 민사사건서류	부등법, 등기신청서류
	49.9점	31점/20점	54.5점/19.5점	39.5점/19.2점

[주제1]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수험시작 동기 및 학원 선택

- 대학교 전공이 법학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법 관련 직업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 로스쿨 준비와 법무사 시험을 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시험공부 그 자체로 지식을 채울 수 있는 법무사 시험을 선택하였습니다.

- 대학교 일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학원가의 새로운 1순환이 시작되는 즈음에 수험생활을 시작하기로 계획하였고 계절학기 등의 방법으로 한 학기 빨리 졸업 학점을 이수하여 2015년 8월 정도에 상경하였습니다.

- 단기 합격을 위하여는 실강을 듣는 것이 필수라 생각하였으나 강사님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학원 선택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결국 '어느 강사님한테 듣든지 합격자는 나온다, 떨어진다면 본인의 문제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였고 당시에 3개의 학원 중 수강료가 가장 저렴하고 시설이 좋은 법무사단기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차 수험기간

- 학원 종합반 및 독서실을 등록하여 커리큘럼에 맞추어 공부하였습니다. 오전에 수업을 듣고 오후 및 저녁에 복습을 하였는데 첫 1순환은 이해가 되지 않아 당일 수업내용에 대한 책을 읽기만 해도 밤 10시~11시가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아침에 실시하는 ox 시험은 매번 응시하였고 무난한 점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공부한 것들을 다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그 결과 새로운 순환이 시작할 때는 늘 백지상태였습니다. 순환이 거듭되고 시험 날짜는 다가왔으나 많은 양과 어려운 난이도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6년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하였습니다. 이후 첫 불합격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였고 이 시기에 베어버린 생활습관은 전체적인 수험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017년 1월 즈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종합반을 등록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부터는 양을 줄이는 것을 위주로 복습하였습니다. 2017년 3월부터는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꾸준히 보았으며 모의고사 점수를 통하여 공부 방향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등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계획한 방향으로 공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였으며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한 고민을 늘 하였습니다. 결국 69점 (커트라인 61점)의 점수로 합격하였습니다.

동차 및 2차 수험기간

- 1차 시험 합격에 대한 갈망이 높았던 만큼 피로감도 컸기 때문에 동차 기간은 쉬고 싶었고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틀간의 시험 모두 응시하여 현장의 분위기와 동선 등을 체크하였고 이는 향후 시험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예비순환인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은 수업에 충실하였습니다. 강사님들이 암기하라고 한 부분은 지독하게 암기하여 모의고사에 그대로 현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스터디를 통하여 답안 작성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점수도 잘 나왔고 무난하게 예비순환이 지나갔습니다.

- 해가 바뀌고 1순환이 시작되면서 저의 슬럼프도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암기에 치중한 탓인지 공부한 것들이 연결되지 않았고 심지어 암기한 부분마저도 모두 희미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생각에 끝도 없이 추락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까지 크게 악화되어 수업에 빠지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공부한 양보다 복습해야 할 양이 점점 더 쌓이게 되었고 결국은 반포기 상태에 이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순환이 끝날 무렵까지 수험생이라고 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 3순환이 시작될 무렵부터는 스터디 멤버들의 영향으로 다시금 정상궤도로 돌아왔지만 부족한 절대적 공부량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고 역시나 시험에는 불합격하였습니다.

재동차 수험기간

- 2차 기득권 불합격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나 한편으로는 합격하기까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생겼고 힘들 때마다 그때의 충격을 돌이켜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 다시 준비하는 1차 시험은 기존에 보던 수험서들로 준비하였습니다. 정독을 통하여 개념을 환기하고 외웠던 두문자들을 다시 머리에 새겼습니다. 정독 후엔 속독으로 다시 기본서를 읽었고 이후 객관식 문제집으로 실전 감각을 깨웠습니다. 4월부터 모의고사에 응시하였으며 마무리 무료특강을 통하여 최신판례를 보충하였습니다. 첫 1차 합격 당시의 공부 방법 그대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무난하게 준비를 했고 73.5점의 점수로 합격하였습니다. (커트라인 60점)

- 1차 시험이 끝난 후 1주일간 휴식을 하고 전체 계획, 월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법과 형법 동영상 강의를 2배속으로 수강하여 개념을 환기시켰고 이후 형사소송법과 민법, 민사소송법은 차례로 실강을 들었습니다. 기득권 당시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주요 과목에 투자하는데 집중했습니다. 8월 중순까지는 하루 2~3과목을 공부했으며 8월 중순부터는 부동산등기법 공부를 더 미룰 수 없었기에 공부시간을 늘리기로 계획하였고 학원 독서실 운영시간이 끝나면 24시 독서실로 이동하여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를 공부했습니다.

- 마지막 한 달은 이를 악물고 공부하였기에 정말 힘들었으며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이상으로 열심히 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근소하지만 결국 2차 시험의 문턱을 넘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수험번호를 올렸고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제2] 나만의 학습 방법

학습계획 수립 및 공부법

-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만으로는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환별로 추상적인 전체 계획을 세우고 월단위, 주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 하루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합격이라는 막연한 목표만으로는 워낙 장기간 준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나태해지거나 목표의식이 희미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계획은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무조건 많이 해야 한다거나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고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수험생활 단축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침마다 실시하는 쪽지시험과 모의고사 점수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단순히 점수만을 보고 잘 봤다 혹은 못 봤다로 끝내서는 안되고 향후 공부 방향을 세우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공부를 하고 다음 회독까지 잊혀지는 기간까지 어느 정도 체크를 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꾸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 공부법에 대하여 돌이켜보면 저는 늘 양을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합격생들은 마지막 날이 되면 하루에 전 과목을 보게 된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염두에 두고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다음 회독 때 이 부분을 다시 읽었을 때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 것을 전제로 이 많은 문장 중에서 어떤 부분을 보면 전체 문장이 기억이 날것인가에 집중했고 그렇게 10문장을 5문장으로, 5문장을 1문장으로 줄여갔습니다. 이는 스스로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훈련이 되었으며 선생님들이 굳이 밑줄을 쳐주지 않아도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스스로 찾아내는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줄이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문장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2차 시험 답안지 작성에 있어서도 보다 깔끔하고 비문이 없는 문장을 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도 양을 줄이지 못해 결국엔 시험에 가까워서는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 암기가 부족한 부분만을 따로 보완하여 점차 양을 줄여나가는 것. 결국은 꾸준한 자기 점검과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터디 서브노트 활용법

- 2차 예비순환 개강과 동시에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답안을 베껴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답안지 구성에 대한 연습을 하였는데 사실상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터디 멤버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 수험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크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장기간 준비하여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너무나도 외롭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게 됩니다. 적정한 선을 지킨다면 더할 나위 없는 지원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브노트는 거창하거나 두껍게 만들지 않았고 크게 숲을 볼 수 있는 목차 정도만을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서브노트에 의존할수록 주관이 개입되고 결국은 쉬운 부분에서 실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

하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보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빠르게 회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제3] 과목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과목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 저는 모든 과목을 다 회독하는 것을 전제로 공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무사 시험이 어렵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수험생활을 시작하시면서도 강의 1회 완강 혹은 1회독만으로 곧바로 점수가 나오길 기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체크해두고 다음 회독으로 넘기고 이해가 된 부분이라도 바로 건너뛸 것이 아니라 빠르게나마 훑어보며 되새겨야 실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해서 되는 시험이 아님을 늘 상기하셔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 저는 처음부터 법무사단기 종합반을 수강하였으며 몇몇 과목만을 다른 학원 강의를 추가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법무사단기 강의로 해결하였습니다. 시험에 가까워서는 1차 시험의 경우 법원직 9급 문제 및 사무관 문제를 추가하였고 2차 시험의 경우 법무사단기와 서울법학원의 3순환 모의고사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과목별 구체적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헌법은 크게 조문,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헌재 판례, 최근 유행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과 헌재 판례의 경우 기본서 및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 등을 통해 대비할 수 있고 최근 유행하는 문제는 마무리 특강 및 최근 법원직 기출문제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교재의 경우 첫 1차 시험 합격까지는 문태환 교수님의 헌법의 정리 및 객관식 문제집을 보았고 재동차기간 동안은 문태환 선생님의 조문판례노트를 보았으며 이때는 따로 객관식 문제집 없이 모의고사 및 최근 법원직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배부하는 천기누설의 헌법 파트를 빠르게 읽는 것이 도움 되었습니다.

- 상법

상법의 경우 주로 나오는 함정 부분, 자주 헷갈리는 비교 개념을 잘 잡아야 합니다. 기본서의 앞뒤를 넘나들며 겹치는 부분, 혹은 달라지는 미세한 부분을 잘 찾아내어 숙지 및 암기하여야 합니다. 다른 어떤 과목보다 암기를 요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암기한 것들을 자주 잊어버려서 회독 수를 높이고 수시로 암기하여 빈틈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대비했습니다.

교재의 경우 문승진 선생님의 상법강의 및 객관식 문제집을 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과목과 마찬가지로 상법 또한 최근 법원직 기출문제를 반드시 여러 번 풀어보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 민법

민법의 경우 양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쉽게 정리를 하지 못하는 과목입니다. 저 역시 끝까지 발목 잡혔던 과목이며 1차 시험의 경우 키워드 위주의 다 회독, 2차 시험의 경우 요건 암기를 통한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특히나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판례 하나를 보더라도 이 판례가 왜 나온 것인지 실제 시험에 이 판례가 나온다면 어디서부터 서술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공부하는 법리의 주소에 집중하였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파트만에 한정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법리 혹은 추가할 수 있는 쟁점을 생각하며 기본서의 앞뒤를 넘나들며 공부했습니다.

교재는 1차 시험의 경우 박효근 선생님의 민법강의cafe와 객관식 문제집을 보았고 2차 시험의 경우 박효근 선생님의 민법강의와 사례문제집을 보았으며 재동차기간 서울법학원 이혁준 선생님의 요건사실론과 사례문제집을 보았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상하게 공부하면 점수가 안 나오고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과목이며 민법의 가족법 파트와 연계하여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재는 김지후 저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보았습니다.

- 민사집행법

1차 시험 과목에서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이며 첫 1차 시험 불합격의 요인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회독수를 늘려 잊어버리는 기간을 줄여 대비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과목으로 생각했습니다. 합격을 위하여는 자신에게 어려운 과목일수록 기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교재는 김정호 선생님의 민사집행법과 판례객관식을 보았고 재동차기간 한봉상 선생님의 민사집행법 예상문제집을 추가하였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은 해당 주제별로 등기가 실행될 때 등기부상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조문을 자주 보아 적재적소에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1차 시험의 경우 오영관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을 준비하기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고 늘 괜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2차 시험의 경우 암기의 압박에 시달려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재동차기간 합격의 법학원의 김미영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암기보다는 조문을 활용하고 큰 목차 위주로 보는 습관을 길러 배운 것을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부담 없는 과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교재는 1차 시험의 경우 오영관 선생님의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 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을 보았고 2차 시험의 경우 논술 기본서를 보았습니다. 재동차기간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오영관 선생님의 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을 보았고 김미영 선생님의 핸드북 암기장을 추가하였습니다.

- 공탁법

김정호 선생님의 강의에 맞춰 공부한다면 항상 합격권의 점수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서를 반복하여 읽고 특히 집행공탁, 담보공탁처럼 까다로운 파트는 사례형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교재는 김정호 선생님의 공탁법 기본서만을 보았습니다.

* 1차 시험에 있어서 법무사 기출문제와 법원직 9급 문제 그리고 법원사무관 문제는 합격의 필수조건이며 가장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을 우선시하고 반복하셔야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사소송법

재동차기간 힘들었던 과정 속에서 가장 재밌게 공부했던 과목입니다. 소송절차의 흐름을 기억하고 관련된 요건을 반드시 암기하며 쟁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한다면 무난한 점수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재의 경우 박효근 선생님의 기본서와 사례문제집, 이혁준 선생님의 기본서를 보았습니다.

- 형법

형법은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실제 투자한 시간에 비해 매번 무난한 점수가 나오는 가성비 높은 과목이었습니다. 구성요건과 개념을 암기한 후 수학 공식처럼 사례에 하나씩 대입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각각의 행위를 잘 쪼개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재는 오제현 선생님의 기본서와 사례문제집을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내내 저를 힘들게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투자한 시간에 비해 늘 점수가 저조했고 마지막까지 과락을 걱정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불안한 나머지 나올만한 주제들을 목차와 키워드로 따로 정리하여 이동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들고 다니며 암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재는 유안석 선생님의 기본서를 보았습니다.

-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이 과목은 소장에서 요구하는 형식 및 표현만을 익히고 나머지는 민법으로 채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동차시험에서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여 점수가 낮게 나왔지만 그것도 결국 민법 문제였습니다. 민법의 실력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점수가 올라갈 것이라 예상합니다. 한 가지 팁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형식부터 채우고 그 이후에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내용을 못 적는 것보다 형식에 배정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교재는 김정호 선생님의 기본서와 이천교 선생님의 기본서를 보았는데 기출문제만 풀어보는 정도로 가볍게 보았습니다. 재동차기간에는 그마저도 보지 않고 형식과 표현만을 환기시킨 후 민법에 투자했습니다.

-부동산등기 신청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면서 각 주제별로 작성 예를 수시로 참고하였고 점심 먹고 30분 정도를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재동차기간에는 시간이 없어 김미영 선생님의 교재 중 소유권 파트만 보았습니다. 시험장에서 잘 작성하였다가 시험 종료 안내가 나옴과 동시에 답안을 빠르게 대폭 수정하였는데 수정 전 답안이 정답이어서 무척 아쉬움이 남는 과목입니다.

교재는 오영관 선생님의 기본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주제4] 시기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시기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 저는 어느 시기이든 기본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객관식 문제이든 사례문제이든 결국은 기본서에서 모두 나오는 문제이므로 기본서를 내 것으로 만들면 자연스레 실력 또한 올라간다고 생각하였고 기본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였습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다음에 이 책을 다시 보았을 때 어느 부분을 봐야 전체적인 내용을 떠올릴 수 있을지 양을 줄이는 고민과 연습을 꾸준히 했고 기본서의 앞뒤를 넘나들며 비교되는 개념이나 자주 헷갈리는 부분, 연결되는 법리 등을 관련

부분에 모두 적어 기본서를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 객관식 문제집은 기본서를 통하여 공부한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체크할 때 한번, 공부한 내용을 테스트할 때 한번(더 봐야 하는 부분은 접어 두었습니다.) 전에 접어둔 부분만을 따로 한번 이렇게 세 번 이상을 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객관식 문제집 또한 회독이 필요한데 다음 회독 때는 표시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력을 가늠하기가 어려워 스스로를 속이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는 아무런 표시 없이 눈으로만 풀었으며 필기가 필요하거나 자주 틀리는 부분은 해당 부분의 기본서에 표시하였습니다.

- 저는 재동차로 합격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동차 준비 과정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처음 기득권 시험에 불합격하고 다시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가장 먼저 비용적인 문제가 컸었고 다음은 1차 시험 합격 후 그동안 쌓인 최신판례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재동차 이상이신 분들은 모두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책이 가장 훌륭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강의를 듣는 것은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며 무엇보다 다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고민했던 흔적, 암기했던 두문자들을 다시 보는 것이 잊힌 기억들을 환기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1차 시험의 경우 월별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과 시험 직전의 마무리 특강은 무조건 들을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당해 연도 법원직 9급과 법원사무관시험 기출문제의 반복은 필수입니다. 마무리 특강과 법원 주관 시험으로 최신판례와 출제 경향을 모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2차 시험의 경우 3순환 강의는 필수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대비하기 벅찬 출제 경향이나 예상문제 등을 강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직전에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유력한 주제만을 엄선하셔서 강의하시기 때문에 방대한 양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또한 꾸준한 모의고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수하는 부분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요구치를 충족 받지 못하여 첨삭은 받지 않았지만 답안지를 활용하여 스스로 꾸준히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주제5. 후배 예비 법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 먼저 항상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기도 어렵고 장기간의 수험생활을 요하는 시험입니다. 누구나 슬럼프에 빠질 수 있고 불합격의 경험을 겪기도 하며 평범하게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자신감 및 자존감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추락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들에 익숙해지고 상처에도 무뎌지게 되면 어느 순간 수험생활을 다른 의미로 즐기게 됩니다. 정말 힘들었던 마지막 한 달 동안은 내가 지금 이토록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하자고 스스로 다짐하며 버텼습니다.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스스로 중심을 가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 또한 수험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척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수험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혹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당시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합격을 하고서 많은 축하 인사를 받으며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적정한 선은 지키되 본인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돌아볼 줄 아는 여유 정도는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합격이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찾고 이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다음 시험의 합격자는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니 잘 준비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